

기부·나눔 문화 확산

축하기부카드제 등 추진

제주도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공동체 구축을 위해 ‘기부와 나눔 분위기 확산 추진계획’을 마련, 시행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승진, 영전, 생일 등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선물 등을 전하는 대신 축하반을 사람 이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기부하면 축하반을 사람에게 기부금 영수증과 축하카드를 보내주는 ‘축하기부 카드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이나 개인 등 민간에서 기부하는 물품 또는 재능 서비스를 어려운 이웃에게 연결시켜 주는 ‘제주인 희망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

또 어려운 이웃에게 식품을 기부하거나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후원자 되기’ 운동을 비롯해 ‘찾아가는 초등학교 나눔교육’, ‘사랑의 열매 1계좌 갖기 운동’, 착한가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숨은 기부자를 발굴, 포상할 예정이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교육기부 박람회 참가
시설 탐방-제주시간강가정지원센터
- 사회복지소식 4·5면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오픈데이’ 개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교육’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사회복지 특별좌담회 지상중계
- 기획 8면
이웃사랑 자원봉사 - 자원봉사연합회

“제주 맞춤형 복지정책 발굴해야”



제주사회복지협의회·한라일보 사회복지 특별좌담회 공동 개최

복지 문제가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사회 전반의 화두가 된 요즘, 정치권 안팎에서 복지 논쟁이 한창이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라는 ‘보편적 복지론’과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일부 계층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선택적 복지론’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 논쟁은 올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여론의 향배를 가를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제주지역 사회복지의 현주소는 어떤가. 사회복지 관련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마련돼 있는가. 도민의 복지 체감도는 어느 수준인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없나. 지방 정치권과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단체 간 소통은 원활한가.

이런 제주지역의 사회복지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는 한라일보와 공동으로 3월 12일

협의회 회장실에서 ‘사회복지 특별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는 박주희 제주도위원의 사회로 이동한 회장, 강승수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권순용 제주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은심 사회복지법인 마로원 대표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7면>

참석자들은 우선 제주만의 차별화된 사회복지 정책 발굴 등을 통해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제주지역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에서 구현해 나갈 사회복지의 기본 골격이 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제주지역 특성에 걸맞는 사회복지 이념과 정신을 오롯이 담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제주도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립 여건을 확충하고 사회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관련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사회복지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설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4월 사회복지시설·단체 행사

※ 이번호부터 사회복지신문 1면에 ‘이달의 사회복지시설·단체 행사 알림란’이 신설됐습니다. 다음호에는 5월 행사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알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jnews@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계시판 알림-행사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제3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마당	유공자 포상 및 장기자랑, 축하공연 등	4월 20일 오전 10시30분 한라체육관	753-3225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제5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식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및 사진전	4월 27일 오후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712-1391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제5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 캠페인	故 양지승 어린이 추모기념 가두 행진 등	4월 27일 서귀북초등학교 일대	732-1391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의 달 기념 사랑의 사진 공모전	주제 : 따뜻한 사랑이 담긴 사진	4월 1일~5월 13일까지 접수	747-3273
제주종합사회복지관	희망의 날개달기 멘토링 사업	결손빈곤 가정 아동 대상 학습 및 문화체험활동 지원	4월부터 연중	753-2740
제남아동복지센터	자연사박물관과 함께 떠나는 지질탐험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 해안 등 탐험	7일 센터 아동 대상	739-1020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2년 4월 사회복지 아카데미	행정실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교육 등	• 신청 접수 : 4월 4일까지 • 교육 기간 : 4월 중	702-3784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12년 1차 아버지학교	자녀와 이야기 하는 아버지, 아내를 이해하는 남편 등	• 신청 접수 : 4월 19일까지 • 교육 기간 : 4월 14일~5월 26일	725-8005

노인·장애인 체험해보니...

“불편함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교육기부 박람회’ 참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는 3월 16~1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2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에 참가, 교육기부 사례를 소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주최로 ‘아이들의 꿈과 세상을 잇는 교육기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기업체,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및 협회·단체 등 130여개 기관이 참여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문화진흥원, 탐라금융포럼 등 4개 기관·단체가 참가, 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찾아가는 초등학생 복지교육’ 사업을 소개하고 장애인·노인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장애인 체험에 참가한 한 학생은 “장애인이 이렇게 불편하게 생활하는 줄 몰랐다”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나이가 들면 겪게 되는 우리 몸의 변화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동이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해 체험하는 기회도 마련,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노인 체험은 양팔목과 양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허리에 보조용구를 착용한 뒤 백내장 특수안경을 낀 채 지팡이를 짚고 걷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인 체험을 한 한 학생은 “팔, 다리가 제대로 안 움직이고 허리도 펴지지 않아 힘들었다”며 “우리 할아버지도 백내

장을 앓았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장애인과 노인의 생활을 체험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분들의 신체적 상태와 심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부 박람회는 교과부가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의 전략으로 교육기부를 범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소득층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제주도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학원비를 전액 지원한다.

제주도는 경제적 부담으로 운전면허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자 올해 2500만원을 들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35명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원등록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수눌음, 이어도, 일터나눔, 으뜸 등 도내 4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 자활·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애인의 날을 명시하고 시행령 제36조에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다고 못 박았다.

1997년부터 ‘올해의 장애 극복상’을 제정,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 시상하는 한편 4월 20일부터 1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실직·휴폐업도 ‘긴급복지지원’

도, 지원대상 확대...생계·의료비 등 지원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닥쳐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나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제주도는 3월부터 긴급복지지원 대상인 위기사유의 범위를 실직과 휴·폐업, 교도소 출소, 노숙 등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 구성원 중 주 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주 소득자가 실직했는데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교정시설에서 출소했거나 돌아갈 가정이 없는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된다.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숙인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 소득자의 사

망과 행방불명에 따른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의 경우에만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장 3개월까지 월 100만95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의료비도 최장 2회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주거비로 3~4인 가족 기준으로 최장 3개월까지 월 36만5000원을 지원하며, 수업료와 입학금 등 교육비와 전기요금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비로 5억여원을 확보, 400여명에게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지 않고 자립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성모씨 후원 영화 ‘얼음꽃’ 제작

전신마비 장애인 ‘응원’

전신마비 장애인인 홍성모씨(33)를 후원하기 위한 영화 ‘얼음꽃’이 제작됐다. ‘얼음꽃’은 대테러 특수요원들의 이야기를 다룬 블록버스터 영화로 전신마비 장애를 겪고 있는 홍성모씨의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초로 영화 예고편을 사전 제작하는 영화다.

홍씨는 지난 2003년 해병대 제대 후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고로 1급 지체장애인이 됐다.(제주사회복지신문 51호 1면 보도)

제주시 노형동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 홍씨는 24시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정이라 수입이 적은 정부보조금이 전부다. 1년에 한 번 인공호흡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구입비만 1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이런 그를 응원하기 위해 ‘얼음꽃’은 영화 속 주인공 이름을 ‘홍성모’로 해 제작됐으며 본편 제작에 앞서 홍씨의 후원금 마련을 위해 국내 최초로 예고편을 사전 제작, 출연 배우들이 입고 나오는 의상 판매 수익금과 출연료 일부를 후원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제주도는 올해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4만8250여명에게 493억원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내 만 65세 이상 노인 7만2580명 중 6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수급 대상자는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 노인가구는 78만원 이하, 노인부부 가구는 124만 8000원 이하인 경우다.

수급 대상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급 대상자가 1947년 5월생이면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자산조사 등을 거쳐 대상으로 선정되면 5월부터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 신청이나 접수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연금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는 2만~9만4000원, 부부가구는 4만~15만1400원을 받는 등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

제주도는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47년생 노인에게 생일 2개월 전에 연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올 상반기 30가구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 장려와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지원 대상을 올해 350가구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2년 상반기에 30가구, 하반기에 20가구 등 50가구를 추가 모집한다.

상반기 모집 기간은 4월 6일까지이며, 기초수급자가 가구 가운데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신청 가구의 자립의지, 적립·사용 계획 등을 심사해 4월 중 최종 지

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2010년 시작된 희망키움통장은 가입 가구가 3년 이내 탈수급(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남)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 및 민간 지원금을 덧붙여 최대 7배까지 적립,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98만원인 3인 가구의 경우,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26만원과 민간지원금(매칭) 10만원이 더해져 3년 후 탈수급 시점에는 1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 탈수급하더라도 사업·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될 때까지는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

4 이달의사회복지 주요 기념일

장애인의 날(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지난 1981년 당시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을 개

최했다. 이후 해마다 4월 20일에 각 시·도별로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장애인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1989년 마련됐다. 장애인복지법 제43조에 ‘장

시선탐방

(53)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한 가정 만드는 구심체 역할

가족교육 · 상담 · 문화 등 통합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사업 운영...미혼모 · 부거점기관

‘가정(家庭)’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부부, 자식, 부모 등 가족의 공동 생활체를 말한다. 가족 구성원이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안식처로 사랑이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뜻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러한 행복의 원천이 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가족 전체를 고려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현경훈 신부)를 3월 20일 찾았다.



“가족 사랑은 배려입니다. 서로 보듬어주고 마음을 쏟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원천인 것입니다.”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문을 연 것은 지난 2008년 5월 23일. 가족문제 예방과 가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됐다.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핵가족화와 저출산으로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결혼이민자 가족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예방과 돌봄, 복지 등 가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년 전부터 전국 지자체마다 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한 것이다.

제주시 삼도2동 옛 제주대병원 인근에 있는 중앙신협 건물 4층에 자리한 제주시 센터는 상담실과 교육실 등이 협소해 4월부터는 이 건물의 2~4층을 모두 활용할 계획이다.

천주교 제주교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 센터의 주요 사업은 크게 ▲교육 ▲문화 ▲상담 ▲보듬 ▲돌봄 등 5개 영역으로 나뉜다.

먼저 가족교육사업을 보면 예비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기초, 심화 교육을 비롯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노후생활교육’, ‘태교교실’,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가족 사랑의 날을 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읍면지역 초등학교를 위한 체험 학습, 한부모가족캠프, 어르신들을 위한 탐라국 나들이, 다문화 및 일반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건강가정 사진 공모전 및 공정여행, 제주올레트레킹 등 다채로운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상담 서비스

도 연중 실시한다. 센터의 지난해 하반기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건수 259건 가운데 가족 구성원 간 갈등 문제로 인한 상담 건수가 1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담활동 외에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상담워크숍과 성격유형 검사워크숍, 알코올·게임 중독자 가족모임 등 가족문제 해결을 돕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자살 등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피해자와 그 가족, 취약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돌보미사업도 센터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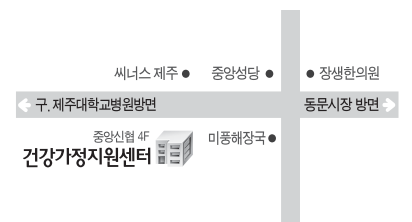
이 사업은 만 12세 미만 아동과 영유아를 둔 부모가 야근이나 질병, 출장 등으로 아이를 일시적으로 돌볼 수 없을 때 센터에서 교육 받은 돌보미를 필요한 가정에 보내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다.

센터는 지난 2010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거점기관으로 지정돼 미혼모와 미혼부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경훈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가정은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세상에 나갈 힘을 주는 따뜻하고 건강한 곳이어야 한다”며 “모든 가정이 사랑을 나누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725-8005



도,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지원 내용은 지붕, 벽 등 구조물 개선, 방수, 도배, 도색, 난방, 배수, 급수 설비 지원 등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저소득계층 58가구의 주택을 개·보수했다.

문의=제주도 복지청소년과(710-2826),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728-2471),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760-2531)

결혼이주여성, 효문화 이해

제주도는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과 지역주민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효(孝) 문화 이해’ 사업을 시행한다.

국제가정문화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4월부터 지역내 10개 마을을 순회



하며 어르신들에게 그동안 연습한 전통춤 공연을 선보인다.

또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바이올린 합주단 공연을 펼쳤다.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 회장예 고충석 전 총장

제주도 자원봉사협의회는 지난 2월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고충석 전 총장을 선출했다.

고전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나라의 선진화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지, 진정한 자원봉사의 참 의미를 알고 있는 지에 달려 있다”며 “자원봉사 활동은 ‘거버넌스’와 ‘민·관·파트너십’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깊숙이 연계돼 사회의 핵심적인 축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고신임 회장은 현재 이어도 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임기는 2014년 2월까지 2년간이다.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協 회장예 이동한 이사장 선출

전국 1300개 사회복지법인을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회 회장에 이동한 이사장이 선출됐다.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회는 지난 2월 21일 서울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2012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이동한 공동대표를 제4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동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실추된 사회복지인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권익 보호와 사회복지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이동한 회장의 임기는 2014년 2월 24일까지 2년이다.



제주도장애인지원협의회 제3대 회장에 고관용씨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는 3월 19일 펠리체웨딩홀에서 읍·면·동 지역별 대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고관용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고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다해 장애인들에게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인 고 회장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협의회 평생회원이기도 하다.



지역주민과 소통의 장 마련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오픈데이' 개최 볼거리·먹거리·체험 프로그램등 운영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이 지역주민들과 친밀감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오픈데이'(OPEN DAY)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3월 18일 오후 복지관에서 지역주민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픈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복지관은 이날 장난감 도서관과 핑크드림 도서관 등 복지관 시설을 개방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행사는 제주서중학교 학생들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어린이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동화구연, 미술교실, 종이접기 등의 체험을 하고 소방관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해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복지관은 지역주민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솜사탕, 팝콘, 어묵, 떡볶이 등 먹거리 장터도 운영했다.

이 행사에 참가한 한 지역



주민은 "우리 동네에 이런 복지관 시설이 있다는 게 너무 좋다"며 "아이도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오픈데이를 기획한 윤은혜 사회복지사는 "복지관의 가장 큰 역할은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덕분에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말했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초급 2단계 교육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옥희)은 3월 19일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인 한국어 과정 초급 2단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어과정 초급 1단계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2단계 교육은 오는 6월 8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주3회 수업이 진행된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무부·자오간이 인정하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국적취득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복지관은 2010년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소/식/마/당

일배움터, 작업활동 프로그램반 운영



일배움터(원장 최영렬)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직업적응훈련인 작업활동 프로그램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일배움터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원예치료, 바리스타 등 특색 있는 과정을 운영, 중증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과 재활 향상에 힘쓰고 있다.

도자원봉사센터, 플루트 전달식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상순)는 3월 17일 제주시청소년수련관 1층 다목적실에서 제2기 플루트 교실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플루트 10개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악기는 제주은행이 후원했으며, 플루트 강사는 도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송나라 자원봉사자가 맡는다.

애덕의집, 애덕3호 체험홈 운영 시작



제주애덕의집(원장 현성훈 신부)은 3월 1일 장애인의 홀로서기를 돕는 '자립생활 체험홈'인 '애덕3호' 운영에 들어갔다.

애덕1호(화북동), 애덕2호(서사리)에 이어 세 번째 체험홈을 마련한 것이다.

애덕의집 관계자는 "체험홈에 대한 작은 관심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부모회, 장애인가족 인식개선 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한봉금) 제주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제주시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가족 인식개선사업과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가족집단 상담프로그램과 부모아카데미, 가족캠프 등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사업과 장애인가족 특화사업도 시행 중이다.

어르신여가활동 서비스 실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어르신 여가



활동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노년의 삶의 즐거움과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복지관은 이를 위해 매주 원예활동, 냅킨공예, 천연화장품 만들기, 종이접기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양성 교육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3월 20~28일 장애인 활동보조인 양성을 위한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시책, 장애유형별 특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모두 91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장애와 이주민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장애인다문화가정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인다문화가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청 소년활동진흥센터는 도내 일선 학교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교육자원, 자연체험, 역사·유적체험, 동아리 및 진로활동 등 100여종이 운영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80명의 전문강사를 각급 학교에 파견한다.

한편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난해 16개 학교, 3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47차례에 걸쳐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교육’ 눈길

가롤로의 집, 종사자·이용자대상 교육 ‘참 소중한 나’ 주제로 11월까지 진행

(사)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가롤로의 집(원장 김금숙)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해 인권교실을 운영, 눈길을 끌고 있다.

가롤로의 집은 3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참 소중한 나’라는 주제로 지적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실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용자의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인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 기준’을 마련, 지자체와 시설 운영자, 직원을 위한 구체적 행동원칙을 제시했다.

따라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대상별, 수준별, 생애주기별 다양한 교육이 필수적이지만 적절한 인권 교재나 전문 강사가 부족해 인권교육 접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가롤로의 집은 도와 전문 인권강사를 초빙, 3월 6~7일 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종사자와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종사자와 이용자 인권교육이 각 10차례 진행되며, 월 1차례에 걸쳐 인권 실천과 홍보를 위한 인권 데이(DAY)가 운영된다.



김금숙 원장은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시설뿐 아니라 도내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교육을 위한 기초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해 장애인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을 기획한 이소영 사회복지사는 “인권교육을 통해 시설 이용자와 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매뉴얼을 만들어 타 시설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제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문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가롤로의 집은 이 사업을 통해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 함양은 물론 자기표현이 서툰 지적장애인들에게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처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자립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쉬는 토요일엔 복지관으로 오세요”

서장복, 토요 프로그램 등 운영

서귀포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3월부터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주말을 이용한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토요일에 복지관을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복지관은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인 사업팀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토요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

다만 사업 지원팀은 기존 월~금요일 근무체계를 유지한다.

탄력근무제 도입에 따라 복지관은 월~토요일 주 6일 운영된다.

토요일에는 복지관 실내놀이터와 야외골프연습장을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풍선아트, 교육미술, 생일파티, 창의미술 등 가족이 참여하는 토요사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지하 1층에는 북 카페를 조성, 지역주민에게 독서·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실시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3월 21일 서귀포시 전지역폭포 야외광장에서 음악과 함께하는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날 캠페인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실태와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를 홍보하고 사진전시회, 아동지킴이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특히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로 어쿠스밴드를 구성, 만화주제곡과 동요에 맞춰 타악기를 연주해 눈길을 끌었다.

중증장애아동 지원사업 실시

창암재활원(원장 박광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메트라이프 코리아재단의 지원을 받아 중증장애아동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연령별 프로그램 시즌2 ‘세상에서 성장하는 나’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주중에 주1회 성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체험,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는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음악치료와 지역사회체험이 이뤄진다.

또 월 1회 중증장애아동 멘토링 활동과 자기주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축제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창암재활원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된 시즌1 ‘세상에서 만나는 나’ 프로젝트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자신을 발견하는 데 목적을 뒀다면 이번 시즌2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접어드는 전환기 중증장애아동에게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임을 인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적여성장애인 자조모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북부분관은 3월 17일 구좌·조천읍에 거주하는 지적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운영했다.

이날 자조모임에서는 종이접기 프로그램이 실시됐으며, 허지숙 자원봉사자가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강사를 맡았다.

지적여성장애인들은 이 모임을 통해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이웃의 정을 나눴다.

한빛지역아동센터, 1박2일 캠프



한빛지역아동센터(시설장 주종훈)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지난 2월 17~18일 센터 야간보호대상 아동들을 대상으로 제주도 애월읍에 있는 웅지리조트에서 1박2일 야외 캠프를 진행했다.

이 캠프에서는 축구, 요리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제주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센터 25일 개소

제주지역에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용 보조기구를 대여하고 수리해 주는 전문 서비스센터가 오는 25일 문을 연다.

사회복지법인 삼다는

25일 제주시 시각장애인복지관 2층에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양예홍)를 개소한다.

이 센터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대여·수리해 주고 현장에서 보조기구를 직접 사용하며 체험할 수 있다.

758@1377
푸드마켓
FOOD MARKET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3월 식품기탁자

▲(주)금강축산유통=육류 461.2kg ▲서문식품=두부 384모, 콩나물 140봉 ▲김치원=김치 60kg ▲(주)삼다유통=삼다수 2L 1,800병 ▲빵따아모=빵 46봉 ▲아산재단=쌀 200kg ▲대상방동=쌀 380kg, 생필품 70여개 ▲이더도지역자활센터=채소류 168kg ▲이든이네=멸치 4.5kg ▲동원물류센터=죽 1,224개 ▲뉴월드마트 서사라점=주식류 24개, 부식류 102개 ▲일배움터=감귤 70kg ▲청룡수산=참굴비 200kg, 고등어 200kg ▲강경찬씨=무 500kg ▲김명수씨=생필품 114개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시작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지역 노인 50여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비롯해 건강검진, 노래교실 등 레크리에이션, 독거노인 방문·전화상담 등 사례



관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3월 서귀포시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칼럼

“당신도 우울하십니까?”



이 선 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우울한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 해 말 전국 성인남녀 6435명을 대상으로 ‘우울과 신체증상 평가척도’를 통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울증상이 중증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무려 59.4%에 달했다. 이 가운데 40~50대 여성의 75% 이상이 우울증과 함께 통증 등 신체증상을 겪고 있었다.

성인 60% 중증 우울증

이유 없이 피곤하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우울하고 슬퍼지는 ‘마음의 감기’라는 이 우울한 기분은 그러나, 종합 감기약 한 알과 같은 처방으로는 해결될 일도 아니다.

고백하자면, 나 역시도 그런 때가 있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밤에 여러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잠을 못 이루고, 결국은 일어나 몇 년 전에 담근 과일주를 마시고 겨우 잠을 불러왔던 것이다. 그 때 알았다.

나이가 들수록 깨어있는 것보다 잠

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걸. 잠을 자면서 우리는 충전을 한다. 우리의 영혼이나 살아가는 에너지, 마음의 힘은 활동의 휴전기인 잠이라는 무의식의 과정을 통해, 나쁜 에너지가 걸러지고 충전되고 날카로운 공격성이 위로되고 달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정 전에 잠들려하지만, 밤에 오랫동안 깨어있는 것이 마치 열심히 사는 것이란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오래된 야행성의 습관을 고치기는 지금도 어렵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라야 비로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일하는 기혼 여성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의 기운이 저하되면, 즉 우울한 기운이 넘치면 이 깨어있는 밤의 시간은 충전의 시간이 아니라, 내면을 활궤는 고통의 시간이 된다.

다 같은 철학처럼 고요한 밤이건만, 마음상태에 따라 창의적인 열정의 시간과 고통이 되는 불면의 시간으로 나뉘는 것이다.

때때로 찾아오는 우울한 밤의 고통을 평소에 친한 정신과전문 의에게 털어놓았다.

참으로 단정하고 명쾌한 선배인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낮은 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실, 나도 늘 우울해. 이 우울은 내가 전문가이지만 어쩔 수 없어. 60세의 나이를 살아오면서 우울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지. 그래서 늘 내 마음과, 신과 대화를 해. 그러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걱정 마, 그냥 존재론적 우울이야.”

존재론적 우울—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니깐, 내 우울한 불면은 어쩐지 열심히 잘 살아 보겠다고 하는 고민의 흔적처럼 생산적인 고통인 것 같아 안심이 되었다. 정신과 전문의도 우울하다고 하지 않는가.

존재론적 우울과 생산적 고통

이제 평균 수명 100세의 시대가 왔다고들 한다.

하지만 노년의 낮과 밤을 채울 에너지와 꿈이 없는 이들에게는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일 것이다. 신경숙의 소설 ‘모르는 여인들’에는 ‘서른이 되기 전에 나는 서른이 지난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생각했다’는 문구가 나온다. 그리고 조물주가 인간에게 생명을 삼십 년만 주었는데 너무 짧다고 슬퍼하자 할 수 없이 짐승들의 생명을 털어와 보태주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란 서른 이후의 인간의 나이에는 소가 내놓은 십 년, 돼지가 내놓은 오 년 등이 뒤따라다니는 것이란 이야기다.

그러므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 우리는 다른 동물들이 내어준 십 년, 오 년 아니 몇 십 년을 잘 살아내어야 생명의 도리를 지키는 셈이 된다. 그 동물들이 인간의 우울타령을 들으면 얼마나 배부르고 염치없는 소리를 한다면 그랬는가?

시론

총선복지공약과 인기영합주의



문 익 순

전 제주4·3사업소장

이번 4·11 총선 공약으로 내 놓은 여·야의 복지정책이 가관이다. 새누리당은 2013년부터 5년간 75조 3000억 원을 투자하여 교육, 보육, 의료, 일자리 및 기타복지를 펼치겠다고 한다.

민주통합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에 반값등록금과 일자리, 주거복지에 164조7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공약을 실천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여·야가 공히 세목(稅目) 신설이나 증세(增稅)없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세수를 늘리고 다른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여 89조원을 마련한다고 한다. 민주통합당은 재정, 복지, 조세개혁으로 164조7000억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아니면 말고’ 식 공약남발

공약을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논란이 되어 왔던 선택적복지와 보편적복지 논쟁은 이제 무의미하게 되었다.

수혜대상과 복지서비스 분야가 파격적으로 확대되고, 소요재원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공약들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천국이 어디 달리 있겠는가.

하지만, 이런 공약들의 실현가능성과 실효성은 어떨까. 정책과 재정을 연구한 전문가는 공약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필부필부(匹夫匹婦)의 입장에서선 동의하기 어렵다.

공약으로 제시된 엄청난 자원조달방법을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목신설이나 증세 없는 자원마련이 가능할까.

정당에서 주장하는 비과세 감면문제, 다른 분야 재정지출 축소 조세개혁 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연구·검토할 가치는 충분하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로 강제하지 않는 한 재원확보에 불투명성은 없다.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칭 ‘버핏세’ 같은 부유세의 신설이나 대폭적인 증세가 아니면 거액의 전체재원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은 이 공약이 재원확보불가로 구두선에 그치거나, 아니면 말고 식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유권자를 속이고 있거나, 속아주길 바라는 것은 아니지. 선거 때면 나타나는 포퓰리즘(Populism)의 한 단면은 아닌지. 실제로 자원조달이 가능하여 실현가능성이 있고 실효성이 담보되는 정책으로 공약할 수는 없는지. 되풀이되는 후진정치문화를 어쩌면 좋을꼬.

이번 복지공약을 보고 정당을 선택할 생각은 없다.

투표는 해야 하고 공약은 믿지 못하니 내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그러나 복지공약은 차치하고 다른 정책이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는 해야 하겠지. 국민주권을 포기해서는 안 되니까.

기고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이 순 복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주무관

우리는 언제 지치고 고달픈가라는 물음에 세계적인 임상심리학자 슬로모 브레즈니츠 박사는 ‘희망이 없을 때’라고 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희망이 떨어져 보일 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도입해 빈곤층 자립지원율 제도화했다. 그러나 빈곤층이 정부지원 수급에 안주하는 등 탈수급·탈빈곤 정

책의 한계점이 노출되자, 수급자의 자립, 차상위층의 빈곤층 전락방지를 위해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로 전환하게 된다.

그간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취업수급자는 별도 관리 및 근로유인이 없어 탈수급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왔다

‘희망키움통장’은 취업수급자가 탈수급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 2000만원 가량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같은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유인정책의 하나로 2010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란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3년 안에 탈수급하는 경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하나다.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매월 본인이 저축액(5만원 또는 10만원)을 결

정하여 저축하게 되면 매월 매칭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된다.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 되어야 하고, 탈수급 시에 지급되는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소규모 창업 등의 용도로 쓸 수 있어 최적의 탈수급 기회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목돈을 마련할 기회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빈곤탈출 및 중산층 진입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사업 대상자를 올해 2회(3·9월)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사람의 몸은 심장이 멈출 때 죽지만 사람의 영혼은 꿈을 잃을 때 죽는다는 말이 있다. 저소득 빈곤층이 꿈을 잃지 않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배려가 필요하다.

❖ 〈사회복지 특별좌담회 지상중계〉

“사회복지 일선 현장과 소통 강화해야”



박 주 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만의 차별화된 복지정책 발굴해야”



이 동 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언제나 사회복지 현장에 답이 있다”



강 승 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도민·전문가의견 폭넓게 반영할 터”



권 순 용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통문화적 요소 복지정책에 접목”



양 은 심

사회복지법인마로원 대표이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적극 활용해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한라 일보는 3월 12일 도의원과 사회복지 전문가, 공무원을 초청, 제주지역의 사회복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복지 특별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사회복지 정책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박주희 의원(사회)**=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약 3800개의 국가 사무기능이 제주도로 이양됐다. 그 중 법률적으로 봤을 때 26개의 사회복지 관련 법이 제주도로 넘어왔다. 상황이 이러하니 제주에 걸맞는 사회복지 이념과 정신이 무엇인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한 회장**=제주도의 정신 문화하면 ‘수놓음’이 있다. 수놓음 정신은 나눔과 배려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어디에 내놓도 자랑할 만한 문화다. 이러한 제주 정신을 사회복지 분야에 녹아들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박주희 의원**=제주도가 지역 특색에 맞는 복지 시책 발굴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계층에게 ‘나눠주기’ 식이나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는 복지 정책 위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다. 제주지역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강승수 국장**=제주지역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정책 발굴 필요성에 공감한다. 복지정책은 맞춤형으로 가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 도민의 복지 체감도가 낮은 게 현실이다. 제주도의 복지시스템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양은심 대표이사**=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올해 종사자 수당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하지만 시설장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설장의 경우 일반 종사자에 비해 업무 책임이 큰 데도 불구하고 수당은 제자리걸음이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보이지만 역차별이나 다름없다.

▲**강승수 국장**=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때 복지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국고지원 사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임금이 통일돼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지역사업의 경우 임금에 결정되는 게 현실이다. 제주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체계를 현실화해 2013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박주희 의원**=우근민 도지사가 공약으로 ‘사회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지만 제주도가 지난해 말 조례를 제출했다가 도의회에서 부결됐다. 현장과 소통하지 않은 데다 제주도의 이념과 정신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복지 정책에 제주지역만의 이념과 정신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본다.

▲**권순용 교수**=필요할 때마다 타 지역 사례를 모방하다 보니 제주만의 독특함이 담긴 정책이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의 전달 시스템과 지원 조직 등 선진화된 정책을 검토해 제주의 실정에 맞게 정착시켜야 한다. 제주도의 전통문화 정신 속에는 사회복지 이념이 담겨있다. 삼무정신에 포함된 신뢰와 돌봄, 조남정신에 담긴 협력과 미래에 대한 대비, 관당정신에 담긴 공동체 의식, 안거리·밖거리 문화에 자립 의식 등 모두가 사회복지 정책 수립에 통용되는 개념들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전통문화적 요소를 발굴해서 사회복지 정책에 접목시켜야 한다.

▲**강승수 국장**=전문가와 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제주만의 사회복지 이념과 방향이 담긴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다.

▲**양은심 대표이사**=제주만의 정신문화만 가지곤 지역상황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쉽지 않다. 현장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조례 제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허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공식화된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면 정말

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박주희 의원**=현장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사회복지 기본 조례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영역이 필요하다. 정책 발굴을 위한 도민들의 복지 욕구 의식 조사와 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 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

▲**강승수 국장**=제주발전연구원에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등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동한 회장**=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연구자들이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박주희 의원**=제주도가 여성 정책개발원을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제주도의 여성정책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자.

▲**양은심 대표이사**=현장에서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여성정책개발원 설립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예산 조달이나 조직 구성에 대한 기본 자료들을 만들어야 한다. 제발연 산하에 여성 정책을 연구하는 부서를 만들고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동한 회장**=장애인, 결손 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범위는 넓다. 결손이나 조손가정의 경우 인간적인 정과 학습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을 하

지 못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양은심 대표이사**=구체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적 약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일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득으로만 잡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정책부터 잘못돼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방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강승수 국장**=충충한 복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대비, 제주여성의 능력개발, 공공의료 시설 확충 등이 제주도의 복지정책의 방향이다. 모든 정책들이 하나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정책을 마련할 때도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양은심 대표이사**=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할 때는 현장과의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제주도와 도의회를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동한 회장**=제주도가 사회복지 일선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선 종사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성과를 거둔다면 종사자들도 일할 맛이 날 것이다.

▲**권순용 교수**=사회복지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는지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연중기획

‘이웃사랑 지원봉사’

(3)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단체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어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돼 활동 중인 단체는 작은세상봉사단, 온누리봉사회, 좋은인연봉사회, 손뜻모아봉사회, 제주백밴드 등 모두 5곳이다. 이들 단체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면서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자원봉사연합회는 이들 5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로 지난 2001년 8월 창립했다. 연합회 소속 자원봉사단체를 소개한다.

작은세상봉사단



▶ 1986년 창단...자원봉사의 길 개척

작은세상봉사단(단장 박형수)은 지난 1986년 6월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한 제1기 자원봉사자 교육 수료생을 중심으로 같은 해 9월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단’이란 이름으로 창단됐다. 이렇게 창단된 자원봉사단은 지난 1991년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지역복지봉사센터 ‘작은세상봉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 봉사단 회원은 199명. 봉사단은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는 성이시들요양원, 셋째주 일요일엔 제주케어하우스를 찾아 청소, 잡초 뽑기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정기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가정을 찾아 도배 등 집수리를 해주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20년 넘게 묵묵히 자원봉사의 길을 개척하며 숭선수범해 온 봉사단이다.

온누리봉사회



▶ 12년째 저소득 가정에 밀반찬 지원

저소득 가정에 12년째 밀반찬을 제공하고 있는 온누리봉사회(회장 이숙희)는 지난 1992년 창립했다.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부실한 밥상에 제

대로 된 반찬을 제공하고자 2000년부터 밀반찬 배달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도내 저소득 가정 60여 가구에 사랑으로 버무려진 밀반찬은 만들어 전달하고 있다. 봉사회 회원은 230여명으로 연령대와 직업은 다양하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는 제주정신요양원, 넷째주 일요일에는 제주요양원을 찾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 주고 청소도 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좋은인연봉사회



▶ 주말이 아닌 주중 봉사활동 ‘눈길’

좋은인연봉사회(회장 고영봉)의 특징은 주중 봉사단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민간 봉사단체들이 주말에 봉사활동을 펼치는 반면 좋은인연봉사회는 주중에 봉사활동을 한다. 주말에 봉사활동이 집중된 터라 봉사의 ‘공백기’라 할 수 있는 주중에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0년 11월 창립한 좋은인연봉사회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과 넷째주 수요일에 성이시들요양원, 아가의 집을 찾아 목욕봉사, 청소 등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기적 봉사활동 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을 때도 봉사활동에 나선다. 회원은 130여명으로 폭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됐다.

손뜻모아봉사회



▶ 요양원서 봉사...이웃사랑 실천

지난 2003년 5월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실시한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수료생 가운데 자원봉사에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여 같은 해 7월 손뜻모아봉사회(회장 김여옥)를 결성했다. ‘손을 모아 함께 뜻을 이루자’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회원은 110여명이다. 봉사회는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는 제주장애인요양원, 둘째주 일요일에는 한아름요양원을 방문, 목욕봉사와 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몸이 불편해 외출하기 힘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나들이를 돕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김장철에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는 등 이웃 사랑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제주백밴드



▶ 음악으로 소외계층에 즐거움 선물

음악을 통해 사랑을 나누는 제주백밴드(단장 김용원)가 창단한 건 지난 2007

년 11월. 자신의 가진 음악적 재능을 연주회 또는 공연이란 형식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문화적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결성됐다. 단원은 70여명으로 매년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를 열고 있다.

문화소외 지역과 제주정신요양원, 제주교도소 등지를 찾아다니면서 소외계층 등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고 있다.

모임이 결성된 이후 지금까지 5년 가까이 한 달에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은 우도나 가파도, 추자도 등 도서 지역까지 제주도에 부속된 어느 땅이든 바다까지 않고 음악을 싶어 나르고 있다.

“5개 자원봉사단체와 소통·교감강화”

이백만 자원봉사연합회장 포부 밝혀



“무거운 직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연합회 소속 자원봉사단체들과 소통과 교감을 강화해 연합회의 위상

을 높이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백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장은 최근 제주사회복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이 회장은 3월 12일 열린 2012년 자원봉사연합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좋은인연봉사회 소속인 그는 10년 가까이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온 베테랑 봉사자다.

매월 성이시들요양원과 아가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청소도 하고 아이들의 기저귀도 갈아주는 등 묵은 일을 도맡아 해 왔다.

이례적으로 경선을 통해 당선된 그는 앞으로 2년간 작은

세상봉사단, 온누리봉사회, 좋은인연봉사회, 손뜻모아봉사회, 제주백밴드 등 5개의 자원봉사단체로 구성된 연합회를 이끌게 된다.

회장으로서 그의 목표는 분명하다.

우선 연합회의 주인이 봉사회 회원들인 만큼 회원들의 단합과 화합을 꾀할 계획이다.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연합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1년에 한 번 이상 각 봉사단체들의 봉사현장을 찾아 그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 방안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각 봉사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밀도 높은 교감을 통해 회원들과 함께 하는 연합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연합회 차원에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그는 “앞으로 연합회의 위상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